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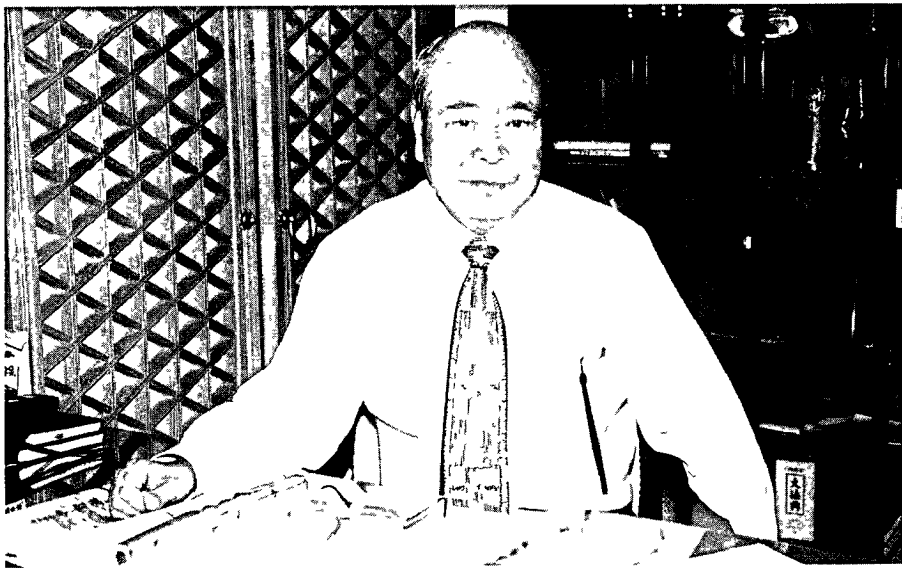
■ 企劃探訪

李洙建 前會長을 찾아

80年代 後半 韓藥協會를 위하여 意慾的인 活動을 펼쳤던 前會長 李洙建 회원을 오랜만에 訪問할 機會를 가졌다

15~16代(85~91)協會長 在職時 韓藥界가 어려움에 處했을 때 左衝右突 總力を 傾注하였던 李 前會長은 忠南 公州出身으로 66年에 韓藥界에 몸 담은 후 韓藥界를 爲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라디오방송과 TV등에 출연하여 韓方醫藥 講座등으로 韓方啓蒙에 앞장섰으며 說得力있는 화술로 協會 業權事業을 解決하는데 寄與한 바가 컸다

몇가지 例를 들어본다면 許可證만으로 營業을 해야했던 韓藥業士에게 資格認定書를 取得하도록 하여 位相을 높였으며, 營業所 移轉이 거의 不可能하였던 當時 道內 移轉을 可能하도록 하는 成果를 올리기도 하였고, 또한 韓醫師側의 反對로 霧散되기는 하였지만 當局과 折衷, 限地韓醫師로서 轉換을 成事시키는 一步直前까지 推進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民俗館에서 정보당 한약방을 經營中인 李 前會長은 92년 國民勳章 石榴章을 受賞하였으며 書藝, 골프, 登山 등 취미생활에 家和萬事成의 信念으로 健康하고 행복한 家정을 꾸리고 있다

한의학의 優秀性에 對하여 見解를 물었더니 거침없이 말씀하신다

「우리민족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음은 곧 주어진 터전 위에서 蓄積한 韓國의 生活經驗의 幅과 깊이가 보다 넓고 깊다는 意味와 통하며 生活經驗을 土臺로 한 歷史性은 곧 經驗 哲學的 經綸인 同時에 韓國的 靈魂이 깃든 統計인 것입니다. 따라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保健 등 모든 分野의 學文가운데 代表的인 統計學이 바로 韓方 醫學인 것입니다.

즉 韓方醫學은 保健醫學的 價値外에도 傳統 精神 文化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韓方人들은 이 經驗 統計科學을 土臺로 疾病을 退治, 豫防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在任時節 推進했던 業權事業과 記憶에 남는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오랜 세월동안 全國의 農 漁村과 奧 僻地에서 地域住民들의 健康增進과 우리의 傳統醫學인 韓醫學 發展에 寄與해 온 진정한 韓藥人인 韓藥業士에게 許可證만 내주어 營業하도록 하는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 資格認定書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韓藥業士의 位相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와함께 당시 許可證만으로 營業하다 許可가 取消된 150여명의 會員資格을 復活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무렵 宿願이었던 韓藥業士의 營業所 移轉을 緩和해 道內 移轉만이라도 可能하게 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84년부터 2년간 淸州 淸원지역 皮膚양자를 대상으로 韓方醫療保險을 示範 實施하면서 韓醫院들은 門前成市를 이루었으나 韓藥房은 醫療保險機關으로 提定되지 못해 生計問題까지 威脅받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韓藥業士의 參與없는 貼藥給與 保險의 全國 擴大實施를 阻止하는 強力한 鬭爭을 展開한 바 있습니다. 當時 保險當局이 우리 韓藥房을 醫療保險機關으로 指定, 韓方 醫保를 全國적으로 擴大實施하였더라면 奧 僻地의 農漁民들이 韓方醫保 惠澤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기 한이 없습니다.

또하나 지난 87년에 韓藥業士를 韓醫科 大學에서 3~6개월 補修教育을 받게하여 限地韓醫師로 昇格시키기로 政府 關係者와 合意하였으나 韓醫師들의 近視眼的인 反對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이 制度가 法製化 되었더라면 近間에 量産된 韓藥師로 말미암아 오히려 業權이 萎縮된 오늘의 韓醫師들의 位相은 더욱 提高되었을 것입니다.」

이어 이 始點에서 協會와 政府가 解決하여야 할 懸案課題를 물어 보았다.

■ 이수건 前회장을 찾아

「協會의 會勢 強化를 위해서는 會員들의 團合된 모습과 더불어 슬기와 勇氣가 必要합니다. 政府는 卽時 韓藥房을 韓方醫療機關으로 指定하여 奧 僻地의 農漁民들이 韓方 醫保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施行해야 합니다. 또한 韓方의 特性上 醫와 藥을 分離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니 따라서 醫와 藥을 分離한 現行制度는 洋方主義的 思考의 所産으로서 韓方의 特殊性을 無視한 制度로 하루 빨리 統, 廢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現在 福祉部 韓方關聯 部署에 韓醫師를 實務者로 採用, 偏跛行政으로 韓藥房 發展에 阻害要素로 作用하고 있으니 業務의 效率化 및 衡平性을 위해서라도 一般職 公務員을 採用하여 均等한 處遇改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協會에서는 協會 業權事業과 韓醫學 發展을 위해 獻身하고 있는 姜容鉉 회장님을 비롯, 會員님들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이며 또한 學術誌인 「大韓韓藥」과 精誠어린 會員의 驗方集인 「東醫驗方新纂」發刊 등 學術事業에 最先을 다하고 있는 李麟星 委員長과 여러 學術委員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신 李 前會長은 二線에 있는 몸이지만 眞心으로 우리 韓藥協會의 宿願事業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祈願한다며 모두 團合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문밖까지 배웅하여 주셨다

編輯室